

지난주일(1월7일) 설교 발췌

제목: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행 19:1-7)

1) 그리스도교 언어는 모두 기본적으로 방언입니다. 설교도 방언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의로워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라, 등등이 모두 방언 아니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상투스' 찬송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찬양이 방언으로 들립니다. 아는 사람은 신앙과 삶의 새로운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을 새롭게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영적인 청각장애를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언어의 존재론적 깊이를 가리키는 방언과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리키는 예언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사춘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세속 원리에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속 원리의 핵심은 자기애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자기에게 몰입하게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거꾸로 잘난 척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일만 찾습니다. 앞만 볼 수 있는 안대를 낀 경주마처럼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깐요.

3) 지금 삶이 피곤하기에 회개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방언과 예언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거리가 멀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발하시라고, 은총을 구하라 말 외에 맞춤형 대답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은 요한의 세례인 물세례 수준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왕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말고 예수의 세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세례를 받으시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시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1월 14일

주현절 후 둘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7주



목련 나무는 꽃 피울 차비를 초겨울부터 시작한다. 꽃봉오리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4월이 오면 저 꽃봉오리에서 등불이 켜질 것이다. (2024년 1월11일 오후, 대원당길 111)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이미 어두워진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올해는 그 빛을 더 환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현절 후 둘째 주일을 맞아/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끌어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C/Gm Eb Cm/Eb Gm/D Cm Fm Bb Eb Eb/D#
 만 왕 의 - 왕 우 리 구 주 태 초 부 터 영 - 원 까 지
 B Bb Bb7 Eb Fm Ab Eb
 영 광 영 광 누 리 소 서 - 아 - - 멘

[알 리 는 말 씀]

- * 예배 후 오늘의 설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첫 모임이 있습니다.
- * 2024년 예배순서가 달라졌습니다.
 - 공동기도 후 영광찬송과 사죄선포 후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영광찬송 후에는 죄의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 * 지난주일(1월 7일) 헌금: 610,000원
 - 주일헌금 330,000원 통장헌금 280,000원
 -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 2024년 1,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1월21일	박재진 목사	이유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1월28일	김동호 목사	최선아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2월4일	정용섭 목사	윤혜정 집사/ 운동희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2월11일	설 연휴			
2월18일	박재진 목사	윤혜정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2월25일	김동호 목사	이기령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2023년 12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주일헌금	1주 380,000	감사비	1,200,000
	2주 110,000	대관비(3회차)	190,080
	3주 60,000	주보비(프린터대여비)	30,000
	4주 110,000	교육비	40,000
	5주 120,000	구체비(재용누리학교, 부산갈매우)	250,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동장헌금	1,100,000	간식비	90,400
선교헌금	100,000	15주년비용(간식, 꽃, 케일)	329,440
대관비환불(12/24)	63,360	성탄절주일학교선물	165,000
수입계	2,043,360	지출계	2,394,920
* 수입 - 지출	- 351,560	잔액이월액 :	11,870,603
		현 잔액 :	11,519,043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국악찬송」 37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국악찬송」 37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2024년도 둘째 주일이며,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둘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살피면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실제 삶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속되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시 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의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여 자비를 베푸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어 주소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상투스) ... 다 함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나
만군의주 하-나-님 하늘과땅-에-가-득한그영광
높은데에호-산-나 주의이름으로오시는이-여
찬양받으소서 높은데에호-산-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준 나운영

세마치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 한
 2. 사랑이 넘치는 용서의 주 하나님 온 세계가 충만한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 되

존귀의 주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구원의 주 하나님 참회와 회개에 평안함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진실케 하시며
 새희망치 솟는 다 고난도 슬픔도 사라지게 하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의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예전

설교 전 기도 ... 다 함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 3:1-10 ... 김용성 집사

성서교독 시편 139:1-6, 13-18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하나님은 저를보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주님께선 저를한히 꿰뚫어서 아십니다
 -제가앉아 있을때나 서서있을 때에도 주님께선 멀리서도 제생각을 아십니다
 제가길을 갈때나 드러누워 있을때에 주님께선 다보시고 제행실을 아십니다
 -제가혀를 놀리어서 말할지 않더라도 주님께선 미리살펴 제가말할 아십니다
 주님께선 동서남북 둘러싸서 막으시고 친히손을 얹으시어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깨달음 제게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는감히 측량조차 엄두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선 제뱃속에 오장육부 만드시고 제가태중 있을때에 사람형체 지으셨네
 -신기하고 놀랍구나 내게생긴 이모든일 주님께선 하신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네
 땅속깊은 곳을통해 저를빛어 내셨기에 이내몸을 주앞에선 숨길수가 없습니다
 -제형체가 생기기전 주님이미 절보셨고 사는연한 정하기전 인생살이 시작전에
 내이름을 생명책에 일찌감치 올리셨네 우리주님 모든생각 어찌그리 깊은지요
 -주님생각 세력해도 모래보다 더 많아서 다세었다 생각해도 헤아릴수 없습니다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 6:12-20 ... 김용성 집사

*셋째 말씀 요한복음 1:43-51 ... 김용성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 ... 김동호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다 함께